



부산문화재단 하반기 설립 기금 300억 출연...문화예술 지원사업 민간에

부산=박상준기자 sjpark@hk.co.kr [블로그](#)

부산시는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가칭)부산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민간에 넘기기로 하고 5월까지 시의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월 세부계획을 세운 뒤 조례 및 정관제정 등 절차를 거쳐 문화재단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시 예산에서 출연해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재단의 조직은 부산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기로 했으며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인력은 사무처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문화재단의 운영경비는 연간 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연간 50억여원의 지원금 심사와 집행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